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온라인) 2026. 11. 26.(목) 12:00
(지 면) 2026. 11. 27.(금) 조간

지역을 품은 '마을기업', 백화점과 상생협력 나선다

- 11월 27일부터 일주일간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우수 마을기업 기획전 운영
- 마을기업의 프리미엄 유통 확대 및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성공 모델 창출
- 단발성 행사를 넘어 향후 직매입 및 상설화 등 다각적인 협력 확대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마을기업의 프리미엄 유통 판로를 개척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현대백화점과 손잡고 오는 11월 27일(금)부터 12월 3일(목)까지 일주일간 '우수 마을기업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 2011년 도입 이후 2025년 말 기준, 전국에서 1,727개가 운영 중이다.

이번 행사는 현대백화점이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의 취지에 공감하여 상생협력의 하나로 추진되었다. 지역의 우수한 자원으로 만든 제품을 대형 백화점에서 선보임으로써, 마을기업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프리미엄 판로 모델을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검증된 품질과 지역의 가치를 담은 반짝매장(팝업 스토어) 운영

이번 반짝매장(팝업 스토어)은 유동인구와 구매력이 높은 현대백화점 판교점 지하 1층 행사장에서 진행된다. 철저한 사전 품질 검증 절차를 거친 지역 농·특산물을 중심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반짝매장(팝업 스토어)은 개별 제품의 판매를 넘어, 마을기업 고유의 지역 가치를 살린 브랜딩을 접목하여 방문객들이 제품의 품질과 함께 '마을기업'이라는 브랜드를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향후 단발성 넘어 상설 입점·직매입까지… 지속 가능한 상생모델 구축

행정안전부와 현대백화점은 이번 반짝매장(팝업 스토어)이 일회성·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체계를 이어갈 계획이다.

나아가 행사 기간 중 소비자 반응과 매출 성과가 우수한 상품을 중심으로 향후 백화점 직매입과 상설 매장 입점 및 정례 반짝매장(팝업 스토어) 개최 등 다각적인 유통 채널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황순조 사회연대경제국장은 “이번 반짝매장 개최는 지역의 가치를 담은 마을기업 제품이 대형 유통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하는 뜻깊은 계기”라며, “앞으로도 대표적인 사회연대경제 조직인 마을기업이 탄탄한 브랜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판로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치혁신실 사회연대경제지원과	책임자	과 장	염성욱 (044-205-3211)
		담당자	서기관	김선옥 (044-205-3214)
			주무관	양도혁 (044-205-322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